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鼎形香爐와 獸形大砲 연구*

이용진**

〈차 례〉

1. 머리말
2.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鼎形香爐와 明清代 殿前香爐
3.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獸形大砲의 獸와 용도
4. 맺음말

[국문초록]

인천시립박물관의 청동정형향로와 수형대포는 1946년 이경성 초대관장이 미 군정청의 협조 하에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관해 온 것이다. 정형향로는 2점으로 하나는 원형이고 다른 하나는 귀가 파손되었다. 三足과 兩耳를 바탕으로 한 정형향로는 송대부터 향로로 용도가 변화하였고, 원대에 들어 실내에서 사용하는 정형향로가 60cm에 이를 정도로 대형화되었다. 대형화된 정형향로는 명대에 들어 사찰의 건물 앞에 놓이는 殿前香爐로 설치되었고, 북경 법해사 천황전과 대웅보전 앞의 전전 정형향로는 이러한 것을 대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전향로의 설치는 청대에도 지속되어 사찰과 황실의 궁궐, 예제 및 능묘 건축 등에도 설치되었다. 명청대 전전향로 중 사찰의 전전향로는 사찰명을 기록하고, 다리와 몸체에 문양을 새겼다. 반면 황실의 궁궐과 예제 건축에 놓이는 전전향로는 삼족과 양이의 기형적 특징만을 지니고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정형향로는 사찰명은 확인되지 않고, 형태상 중국 북경 천단의 정형향로와 유사한 모습이어서 하남성의 유교건축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향로는 양이가 S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향로를 朝冠耳爐라고 하고 전전향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수형대포는 포구는 동물의 얼굴, 포신에는 사람의 손발이 표현된 독특한 도상이 결합된 것이다. 수형대포에 적용한 獸는 특정 동물보다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14일 인천시립박물관이 개최한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인천육군조병창 중국 유물>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조교수

손발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신의 명문에 따르면, 이 수형대포는 1861년 여름 하남성 개봉부에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고, 縣 앞에 한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하남성 개봉부에 있던 한 글자의 杞縣이 있어 하남성 개봉부 기현의 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형대포는 주조선으로 보아 여러 개의 주조틀을 사용하여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청대의 화포와 비교하면서 용도를 살펴보았는데, 유사한 예는 없어 예포 또는 장식용 포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수형대포를 만들었던 1861년이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이 있던 시점으로 이것이 예포였다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정형향로(鼎形香爐), 전전향로(殿前香爐), 조관이로(朝冠耳爐), 수형대포(獸形大砲), 산해경(山海經)

1. 머리말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3점의 중국 범종과 2점의 정형향로, 1점의 수형대포는 부평에 있던 일본 육군 조병창에서 해방 이후 미군정의 협조 하에 이관해 온 것이다. 대동아 전쟁 당시 일제는 인천항을 대륙 침략의 관문으로 삼아 조병창을 세우고 북중국과 요녕성, 우리나라에서 수탈한 유기와 철 등의 금속을 쌓아놓고 이를 녹여 무기를 만들었다. 일본의 패망 후 부평 조병창의 금속과 금속공예품은 미 軍政廳이 접수하여 관할하고 있었고, 1946년 3월 石南 李慶成(1919~2009)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장은 김재원 국립중앙박물관 장으로부터 인천 조병창에 중국의 큰 종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현지를 방문하여 미군 중위 Hompel의 협조하에 중국종 3점, 정형향로 2점, 관음보살상 1구, 獸形大砲 1점 등을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관해 왔다. 인천 조병창에 있던 중국의 금속공예품들은 주로 중국 하남성에서 제작된 것들로 수탈했던 지역도 알 수 있다.

3점의 중국 범종은 금대 철제범종, 원대 철제범종, 명대 철제도종으로 인천시립박물관 야외 전시각, 정형향로는 인천시립박물관 전시실, 수형대포는 인천도시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중국 금속공예품에 대해서는 그간 철제 범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정형향로와 수형대포에 대해서는 현상 설명과 제작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¹⁾ 그러나 정형향로와 수형대포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용도와 성격, 제작 시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형향로의 현상과 함께 중국에서 건물 외부에 殿前香爐로 정형향로를 사용한 시기를 살펴보고,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정형향로가 부평 조병창에 오기 이전 중국 하남성의 어떤 곳에서 사용되었는지 현재 남아있는 중국 明代 殿前香爐와 비교하면서 사용되었던 장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 정형향로의 조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명칭과 제작 시기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수형대포는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희귀한 예로 중국의 명청대에는 어떤 종류의 화포가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수형대포의 포구와 포신에 새겨진 동물(獸)이 무엇인지를 도상적으로 밝혀보고, 수형대포에 새겨진 명문을 바탕으로 제작 시기와 제작 기법,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2.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鼎形香爐와 明代 殿前香爐

1) 정형향로의 현상

1946년 당시 부평 조병창에 있던 정형향로는 모두 6점이었고, 이 중 2점이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관되었고, 나머지 4점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²⁾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두 점의 청동정형향로는 三足과 兩耳로 구성되어 있다. 두 점 중 한 점은 완형으로 높이 99cm, 지름 63.5cm이고, 양이가 잘린 것은 높이 102cm, 지름 63.5cm이다. (圖1)

-
- 1)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중국 금속공예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2022년도 인천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자료집 - 조병창의 중국유물』, 2022;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중국 불교문화 유산』, 2016;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2008.
- 2) 1946년 부평 조병창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된 4점의 정형향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으며,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정형향로에 비해 훼손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따라서 1946년 이경성 관장이 이관해 올 때 6점의 정형향로 중에서 상태가 좋은 2점을 선별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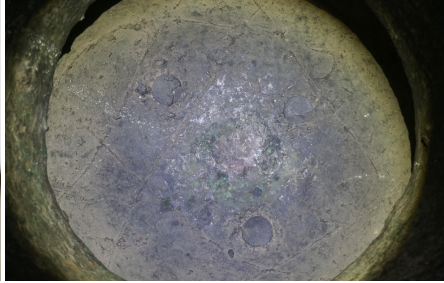
【圖1】〈청동정형향로〉, 중국 청대, (좌) 높이 99cm, 지름 63.5cm,
(우) 높이102cm, 지름 63.5cm, 인천시립박물관

두 점의 정형향로의 다리는 모두 말굽형(蹄足)이고, 몸체는 배가 볼록한 鼓腹形으로 하단은 굽은 선으로 다리와 구분하였고, 몸체 중앙에는 세 줄의 굽은 선을 둘러 몸체의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였다. 몸체 상단 측면에는 S자형의 兩耳가 달려 있고, 몸체 위에는 12줄의 용기선이 표현된 비교적 긴 목이 있다. 두 점의 정형향로는 크기와 형태, 구조수법, 재질 등이 같아서 같은 장인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형향로들은 일체 구조로 만들었으며, 표면에는 가로 세로의 분리선들이 남아있어 여러 개의 주형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S자형의 귀는 쇳물을 부을 때 쇳물이 굴곡을 따라 굽이쳐 들어가기 때문에 주형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형의 코어를 미리 좌우에 고정하여 구조하였다.³⁾(圖2) 몸체 상부의 어깨 부분과 목에는 주형틀을 여러 조각으로 제작한 분리선이 있고, 몸체 내부 바닥에는 삼각형의 구도로 약간 돌출한 원형의 돌기가 있는데, 몸체의 주형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배치한 코어로 보인다.⁴⁾(圖3)

3) 안귀숙, 「인천의 중국 불교공예」, 『인천의 중국 불교문화 유산』,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6, 196~197쪽.



[圖2] 향로 귀의 □자형 코어



[圖3] 향로 내부 원형 코어

2) 明清代 殿前香爐의 설치

三足과 兩耳를 기형적 특징으로 하는 鼎은 원래 중국 商周代에는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권력의 상징물이자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의 표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송대에 들어 정은 권력과 신분 표식의 용도에서 벗어나 향로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용도의 변화는 당시의 고동기 수집과 감상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

송대에는 사대부와 황실이 중심이 되어 고동기를 수집하였는데, 사대부들은 再現三代, 황실은 예제 개혁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집하였다. 송대의 구양수는 고동기 수집의 목적을 玩好之物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구양수의 인식을 따라 송대 사대부들은 고동기를 수집과 감상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남송의 사대부들도 고동기를 玩古의 대상으로 생각하였고,⁵⁾ ‘明窓淨几’라고 하는 사대부의 책상을 고동기가 채우기 시작하여, 독서에는 鼎을 향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송대의 고동기 수집과 감상의 영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정은 용도는 이후 향로로 고착화되었다.⁶⁾

송대 명창정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정형향로는 이후의 왕조들에서도 보편화되고 정형화된 향로로 정착하였고, 왕실과 사대부들뿐만 아니라 사찰과 도

4) 안귀숙, 앞의 글, 198쪽.

5) 陳芳妹, 「追三代於鼎彝之間 - 宋代의 考古から玩古への展開について」, 『美術研究』 391, 東京文化財研究所, 2007, 184쪽.

6) 이용진, 「송대 공예비평서들과 감상안」, 『미술사학』 30,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5, 355쪽.

관에서도 향로로 사용되었다. 元代의 정형향로는 三足과 兩耳의 기형적 특징만 유지하고 문양은 생략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다리는 짐승 얼굴이 표현된 수족과 S자형의 양이를 가진 정형향로가 제작된다. 앞의 예를 대표하는 것이 신안선 출수 鼎形香爐로 몸체는 鬲을 닮았지만, 양이는 반원형의 새끼 줄 모습으로 되어 있어 形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圖4) 반면 江西省 宜春 窖藏 출토 정형향로는 수면이 달린 삼족과 S자형의 양이가 몸체 상단에 붙은 형태로 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圖5)



【圖4】〈청동정형향로〉, 元 14세기, 높이 10.7cm, 국립중앙박물관



【圖5】〈청동정형향로〉, 남송~원초, 높이 37.5cm 江蘇省 宜春窖藏 출토



【圖6】〈청동정형향로〉, 원 1291년, 높이 61cm, 陝西省 涇川縣 水泉禪寺

한편 元代에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정형향로가 점차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陝西省 涇川縣元 水泉禪寺 정형향로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명문에 따르면, 이 향로는 1291년에 만든 높이 61cm의 대형 정형향로로 獸面이 달린 삼족과 八卦가 표현된 몸체로 구성되어 있고, 양이는 부러져 있다.7)(圖6) 수천선사

정형향로는 원대부터 대형화되는 정형향로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明清代의 정형향로는 形과 識를 유지한 방제한 商召夫鼎, 文王鼎과 같은 정형향로와 形만 유지하는 새로운 기형의 정형향로인 宣德爐가 제작되기도 하였다.⁸⁾ 또한 궁궐이나 사찰의 건물 앞에 높이는 대형 殿前香爐의 설치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북경 法海寺 天皇殿과 大雄寶殿 앞에는 철로 만든 정형향로가 놓여 있다.⁹⁾(圖7, 8) 천황전 앞의 정형향로는 높이 66cm로 말굽형 다리에 나선형의 구름문이 새겨져 있고, 몸체는 고북형으로 얇은 용기선으로 몸체와 다리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 몸체 상단 측면에 2개의 S자형의 귀가 달려 있다. 목은 안으로 들어간 束頸形이며, 구연에는 양각으로 “大明嘉靖三年四月吉日造勅賜法海寺供奉”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¹⁰⁾



【圖7】〈철제정형향로〉, 明 1524년, 높이 66cm, 북경 法海寺 天皇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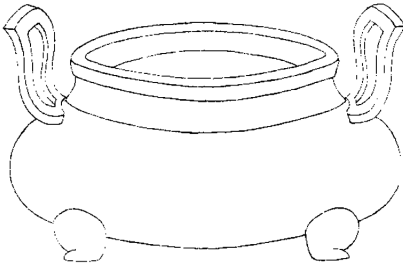
【圖8】〈철제정형향로〉, 明 1524년, 높이 66cm, 북경 法海寺 大雄寶殿

7) 이 향로의 구연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大元國陝西涇州在城水泉禪寺主持僧行高合院等鑄到銅香爐一鼎于法堂內永遠焚供養歲次辛卯年七月口日院主僧祖燈謹題大監甘泉王善。”

8) 이용진, 「중국 고동기 鼎의 방제와 경향, 그리고 영향」, 『미술사학연구』 306, 한국미술사학회, 2020, 145~148쪽.

9) 북경 법혜사 정형향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많은 참고가 된다. 주경미, 「중국 법혜사 소장 금속 제불구 연구」, 『미술자료』 70·71, 국립중앙박물관, 2004, 184~186쪽.

10) 주경미, 앞의 논문, 184쪽.



[圖9] 『宣德彝器圖譜』의 朝冠耳爐

명문에 따르면, 천황전 앞 정형향로는 明 嘉靖 3년인 1524년 조칙으로 사여하여 봉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웅보전 앞의 정형향로도 같은 크기로 원형의 석조 받침 위에 놓여 있어 차이를 보인다. 말굽형 다리에는 나선형의 구름문이 표현되어 있고, 고복

형 몸체에는 가는 용기선을 두어 다리 부분과 구분하였으며, 몸체 상단 측면에는 2개의 S자형 귀가 달려 있다. 목은 안으로 들어간 束頸形이며, 구연에는 천황전 앞의 것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대웅보전 앞 정형향로는 몸체 아랫부분에 두꺼운 칠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철제 공예품 표면에 도칠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¹⁾

법해사 천황전과 대웅보전 앞의 정형향로는 말굽형 다리와 S자형의 양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정형향로를 朝冠耳爐라고 부른다. 조관이로는 명대 宣德 3년과 4년에 만든 선덕로의 한 가지 형태로 『宣德彝器圖譜』에 수록되어 있다. (圖9) 이처럼 S자형의 양이를 가진 향로를 조관이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형향로의 귀가 朝冠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S자형의 양이를 가진 정형향로만을 조관이로라고 부른다. 한편 이와 같은 대형의 殿前향로는 명대뿐만 아니라 청대에도 지속된다. 특히 청대에는 사찰뿐만 아니라 자금성 태화전이나 천단, 황제릉 앞에도 전향로가 설치되어 확산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자금성 태화전 앞에는 모두 18개의 정형향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18개는 모두 동일한 모습이다.¹²⁾ (圖10) 자금성 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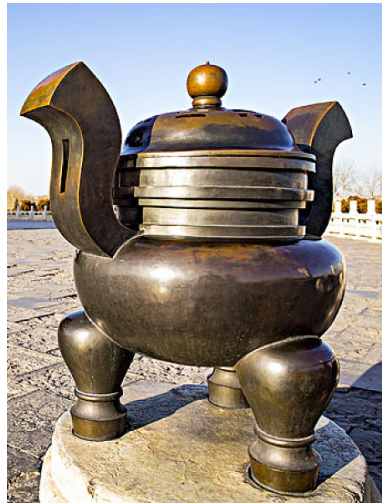
11) 주경미, 앞의 논문, 185~186쪽.

12) 청 吳長元의 『宸垣識略』 卷2 「大內」편에는 태화전 앞에 놓인 기물들에 대한 설명이 있다. 『신원식략』에 따르면, 자금성 태화전 앞에는 18개의 정형향로가 놓여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吳長元, 『宸垣識略』 卷2, “殿前丹陛, 環以白石欄, 陛五出, 各三成, 共列鼎十八, 銅龜, 銅鶴各二, 日晷, 嘉量各一” 『신원식략』은 중국 浙江省 仁和출신인 오장원(생몰년 미상)이 북경에서 10여년을 생활하면서 북경 전역과 교외를 포괄한 지역 내의 모든 시설과 그것에 대한 연혁, 풍경과 고사, 문장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16권의 책으로 1788년 발간되었다. 이 책은 1782년 간행된 『日下舊聞考』의 요약본

전 앞의 정형향로는 원형의 석조 받침 위에 놓여 있다. 삼족은 말굽형으로 발목 부분에 띠가 둘러져 있고, 고북형 몸체 상단 양측에 S자형의 양이가 달려 있다. 몸체 상단과 연결되는 목은 束頸形이며 연꽃과 같은 화문이 표현되어 있고, 구연 위에는 2단의 뚜껑이 달려 있다. 북경 천단 황궁우 앞에도 자금성 태화전 앞의 정형향로와 같은 모습의 향로가 설치되어 있다.(圖11) 천단 황궁우 앞의 정형향로는 석조 받침 위에 놓여 있으며, 삼족은 말굽형으로 자금성 태화전 앞의 정형향로와 같이 발목 부분에 띠가 둘러져 있다. 몸체는 고북형으로 상단 양측에 S자형의 양이가 달려 있다. 목은 束頸形이지만 높아졌고, 높아진 목에는 3줄의 굵은 띠가 표현되어 있다. 뚜껑은 윗면에 팔괘가 투조되어 있고, 정상에는 보주형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圖10】〈청동정형향로〉, 淸 1695년 추정
北京 紫禁城 太和殿



【圖11】〈청동정형향로〉, 淸代,
北京 天壇

궁궐 앞의 전전향로는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경복궁 근정전 켓기둥

형태로 五城全圖, 大內圖, 皇城圖, 外城圖, 八旗배치도 등 18쪽의 지도를 첨부하였다. 최형섭, 「역사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17-18세기 ‘老北京’의 풍경」, 『中國文學』 91,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91쪽;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www.e-lib.sen.go.kr : 84)

옆에 놓여 있는 청동정형향로와 덕수궁 중화전의 정형향로가 그것이다.¹³⁾ 근정전의 청동정형향로는 1867년 근정전이 완공되면서 같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¹⁴⁾

근정전의 청동정형향로는 8각과 원형으로 된 대좌 위에 놓여 있다. 높이 98.5cm의 이 향로는 삼족에 양이,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圖13)



〔圖13〕〈경복궁 근정전의 정형향로〉,
조선 1867년



〔圖14〕〈덕수궁 중화전의 정형향로〉,
대한제국 1905년

고북형 몸체의 목 부분에는 화문이 나타나고 있고, 몸체의 상단에는 연관문, 하단에는 파도와 물결문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전에는 8괘가 투조로 나타난다. 향로의 목 부분에서 시작되는 兩耳에는 안쪽과 바깥쪽에 봉황문이 새겨져 있다. 다리는 상단에는 수면이 있고, 그 아래로는 비늘과 발톱이 표현되어 있다. 뚜껑의 정상에는 용머리가 있고, 그 아래로 향이 나갈 수 있게

13) 조선후기의 정형향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용진, 「조선후기 정형향로 연구」, 『동악미술사학』 3, 동악미술사학회, 2002.

14) 경복궁 근정전은 1867년 완공되지만 경복궁 중건에 대한 의계가 전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중건 상황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경복궁영건일기』가 전해지지만 이것은 경복궁 중건 초창기의 기록으로 정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근정전의 정형향로는 근정전이 완공되는 1867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현균, 「경운궁 중화전 중층가구 복원계획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1쪽.

烟孔이 있다.

덕수궁 중화전의 정형향로는 1902년 중층으로 중화전을 증건할 때 설치되었으나 1904년 화재로 소실되어 1905년에 단층으로 증건할 때 다시 설치된다. 현재 덕수궁 중화전 컷기둥 옆에 설치된 정형향로는 1905년에 설치한 것이다. (圖14) 1902년에 편찬된 『中和殿營建儀軌都監』 圖說에는 중층의 중화전이 있고, 중화전 컷기둥 옆에 정형향로가 배치되어 있다. 1906년 편찬된 『경운궁증건의궤도감』 도설에는 단층의 중화전이 있고, 컷기둥 옆에 같은 정형향로가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중화전의 정형향로는 獸面이 있는 삼족과 몸체, 양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족은 수면이 있는 얼굴과 비늘이 있는 발톱으로 되어 있다. 몸체는 중앙의 굵은 선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연관문, 하단에는 물결과 파도문이 새겨져 있다. 몸체와 연결되는 전에는 八卦가 투조되어 있고, 목에서 시작된 양이는 직사각형으로 귀의 상부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다. 경복궁 근정전과 덕수궁 중화전에 전전향로가 설치되면서 왕실 의례시 어칸 좌우에 설치했던 향로는 사라지고 전전 정형향로가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¹⁵⁾ 이처럼 중국의 영향으로 경복궁과 덕수궁 증건시에 설치된 조선과 대한제국기의 궁궐 전전향로는 중국 명청대의 전전향로와는 다르게 삼족과 몸체, 양이에 모두 문양이 표현되어 있어 형과 지를 모두 갖춘 전전향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명청대 사찰과 궁궐에 설치된 전전향로는 원대부터 시작된 대형화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찰의 전전향로는 사찰명과 제작 시기를 정형향로의 목에 새기고 있으며, 일부에 문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청대 황실과 관련된 궁궐 건축의 전전향로는 三足과 兩耳만을 갖춘 고동기 鼎의 形만 유지한 정형향로를 전전향로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경 이화원 仁壽殿 앞 전전향로에는 다리와 몸체에 문양이 표현되어 있어 황실 관련 전전향로는 장소에 따라 다리와 몸체에 문양이 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성 건청궁 앞 전전향로와 이화원 인수전 앞 전전향로는 ‘大清乾隆年

15) 이용진, 앞의 논문, 2002, 331~333쪽.

造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건륭 연간에 제작,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찰의 전전향로는 사찰명과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과 문양이 시문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황실 관련 전전향로는 궁궐과 능묘, 그리고 이화원과 같은 휴양시설 등의 장소에 따라 形만 유지한 것과 形과 識를 모두 유지한 전전향로가 설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정형향로의 성격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정형향로와 북경 법해사 명대 정형향로, 자금성 태화전 앞 정형향로, 천단 황궁우 앞의 정형향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전전향로는 삼족과 양이를 가진 정형향로이자 S자형의 양이를 가진 朝冠耳爐라는 공통점이 있다. ([표 1])

[표1] 인천시립박물관 정형향로와 명청대 殿前향로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정형향로와 형태상 가장 유사한 것은 북경 天壇 皇穹宇 앞의 정형향로로 말굽형 다리와 S자형 양이 이외에도 목이 길어지고 굽은 선이 표현되어 있다. 더불어 궁궐 및 예제 건축에 놓인 정형향로는 별다른 문양 없이 기형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어서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정형향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¹⁶⁾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정형향로는 명문이 없어 정확한 제작 시기와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부평 조병창의 다른 유물들과 같이 하남성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⁷⁾ 앞에서 살펴본 정형향로 중 법해사의 전전향로는 사찰명이 기록되어 있고, 청대 사찰의 하나인 남경 棲霞寺의 전전향로도 몸체에 ‘棲霞古寺’가 새겨져 있어 청대 사찰의 전전향로에도 사찰명이 새겨진 것을 알 수 있다. (圖15) 따라서 명청대 사찰에 설치된 전전향로의 경향을 고려하면,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정형향로는 사찰에서 사용했던 전전향로라기보다는 삼족과 양이라는 鼎의 기형적 특징을 유지한 청대 하남성의 유교 또는 예제 건축에 사용되었던 전전향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圖15】南京 棲霞寺 전전향로, 清代

3.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獸形大砲의 獸와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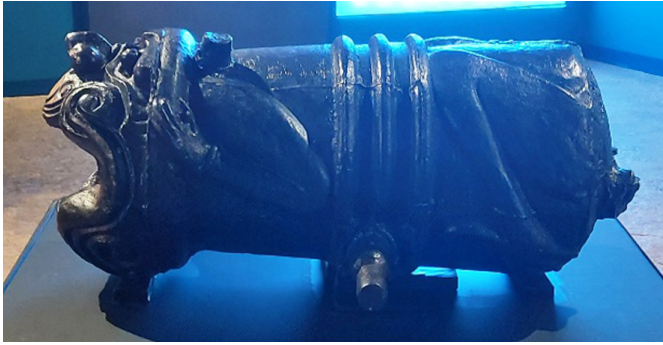
1) 수형대포의 현상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수형대포는 淸 咸豐 11年(1861) 여름 하남성 開封 지역에서 만들어진 화포로서 1940년대 일제에 의해 중국에서 인천 부평에 있는 조병창에 운반된 유물 중 하나이다. (圖16) 수형대포는 길이 125cm, 지름 55cm의 중형 화포로서 포구에는 동물의 얼굴이 장식되어 있고, 포신에는

16) 청대 황실 관련 전전향로 중 응정제의 秦陵에 있는 전전향로는 기본 형태는 자금성 태화전 및 천단 황궁우 앞의 전전향로와 유사하지만, 다리와 몸체에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따라서 청대 황실 관련전전향로는 조관이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 다리와 몸체에 문양이 시문된 것을 알 수 있다.

17) 인천시 역사자료관, 앞의 책, 2016, 194쪽.

사람의 팔다리와 유사한 팔다리가 표현되어 있다.



[圖16] 〈獸形大砲〉, 淸 1861년, 길이 125cm, 인천시립박물관

포구의 동물은 길은 눈썹 아래에 돌출한 눈이 표현되어 있고, 코는 돌출된 들창코의 모습이며, 입과 연결된 인중은 如意頭의 모습이다.(圖17) 입은 크게 벌리고 있고, 포신의 중앙부까지 뚫린 채 연결되어 있다.



[圖17] 〈수형대포의 수면〉



[圖18] 〈수형대포의 주조선〉

포신은 앞쪽이 좁고 뒤쪽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이고, 포신 중앙에는 3줄의 굵은 용기선이 둘러져 있으며, 아래쪽에는 봉 형태의 砲架가 달려 있다. 용기선을 중심으로 앞쪽 측면에는 팔, 뒤쪽 측면에는 다리가 표현되어 있다. 이 수형대포는 동물의 머리가 있는 포구와 포신 등에 여러 개의 주조

선이 눈에 띄는데, 얼굴 부분은 2개, 몸체는 5개, 대퇴부는 4개의 주형들을 사용하여 주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圖18)

2) 수형대포 명문과 제작지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수형대포의 포신 앞쪽 윗면에는 양각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 (圖19)

大清咸豐拾一年夏月造
河南開封
府○縣南
斗子○○國○
里淨順○○○鎮
寨大吉 李○○造



[圖19] 수형대포의 명문

포신에 새겨진 명문 중에는 판독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 전체 명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작 시기와 제작지는 알 수 있다. 명문에 따르면, 이 수형대포는 청 함풍 11년인 1861년 중국 河南省 開封府의 柘縣에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제작 시기와 제작지에 대한 파악 이외의 것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줄에 寨大吉과 李○○造는 이 수형대포를 만든 제작자로 추정된다. 명문에 제작지로 보이는 하남성 開封府의 한 글자의 縣으로는 柘縣이 확인되고 있어 이 수형대포는 하남성 개봉부의 柘縣에 있던 공장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수형대포를 만들었던 함풍 11년인 1861년은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이 진행되던 시점으로 왜 이 시점에 하남성 개봉부에서 이와 같은 수형대포를 만들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태평천국운동 진압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양무운동의 시작을 기념

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861년의 내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수형대포의 獸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수형대포는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팔다리를 결합한 독특한 도상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동물을 결합한 도상은 사람의 얼굴과 동물의 손발을 결합한 도상이 많지만,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손발이 결합한 도상은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도상의 확인을 위해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손발을 가진 도상이 많이 수록된 『山海經』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山海經 南次二經』에는 활회(猾裹)와 체(倮)가 기록되어 있는데, 활회는 생김새는 사람 같은데 돼지갈기가 있고 동굴에 살면서 겨울잠을 잔다고 기록하고 있고¹⁸⁾(圖20), 체는 생김새가 호랑이 같고 소의 꼬리를 하고 소리는 개가 짖는 것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⁹⁾(圖21)



[圖20] 『山海經』 「南次二經」의 猾裹



[圖21] 『山海經』 「南次二經」의 倮

18) 『山海經』 「南次二經」, 又東三百四十里曰堯光之山, 其陽多玉, 其陰多金, 有獸焉, 其狀如人而彘鬣, 穴居而冬蟄, 其名曰猾裹.

19) 『山海經』 「南次二經」, 又東三百四十里曰堯光之山, 其陽多玉, 其陰多金, 有獸焉, 其狀如人而彘鬣, 穴居而冬蟄, 其名曰猾裹.

『山海經』 「中次八經」에는 神計蒙에 대해 사람의 몸에 용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²⁰⁾(圖22), 『山海經』 「海外南經」에는 짐승의 몸에 검은 빛이며 입에 서 불이 나온다하고 한 厭火國이 기록되어 있다.²¹⁾(圖23)



[圖22] 『山海經』 「中次八經」의 計蒙



[圖23] 『山海經』 「海外南經」의 厭火國

『산해경』에 나오는 동물 얼굴에 사람의 손발을 지닌 도상 중 활회와 চে는 유인원에 가까운 모습이고, 계몽은 용의 얼굴에 사람의 몸이며, 염화국은 짐승 얼굴에 유인원의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해경』에 나오는 동물 얼굴과 사람의 손발을 결합한 도상과 수형대포의 동물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 얼굴과 사람과 유사한 손발이 결합되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염화국은 대략적인 도상과 불을 뿜는 기능이 수형대포와 기능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형대포의 포구에 표현된 동물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동물의 강인함과 함께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의 손발을 결합한 도상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수형대포의 獸를 해치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해치는 사람의 옹고

20) 『山海經』 「中次八經」, 又東百三十里, 曰光山, 其上多碧, 其下多木. 神計蒙處之, 其狀人身而龍首, 恒遊于漳淵, 出入必有飄風暴雨.

21) 『山海經』 「海外南經」, 厭火國在其國南, 獸身黑色, 生火出其口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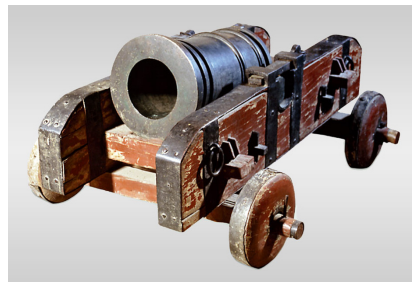
그림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 사람이 싸우거나 사람의 정직하지 못함을 보면 이를 응징하는 능력이 있어 해치의 상징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 관청에 설치한 화포로 보기도 한다.²²⁾

4) 수형대포의 용도

수형대포는 포신의 구경에 비해 포신이 짧고, 포탄의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포라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화포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형대포는 중국을 포함한 국내외에 현존하는 화포의 형태와 유사한 것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면 『大清會典』 武備條의 威遠將軍砲와 가장 유사하다(圖24). 『대청회전』 무비조의 위원장군포는 동으로 만들고, 종을 위를 향하도록 놓은 듯하며, 무게는 750근, 길이는 2척 5촌으로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원장군포가 북경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圖25) 이 위원장군포는 淸 康熙 29년인 1690년에 제작한 것으로 길이 69cm, 구경 21.2cm로 『대청회전』 무비조 위원장군포의 길이 2척 5촌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²³⁾



〔圖24〕『大清會典』 武備條의 威遠將軍砲



〔圖25〕〈威遠將軍砲〉, 청 1690년, 길이 70cm
북경 고궁박물관

22) 인천시립박물관, 『2022년도 인천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자료집 - 조병창의 중국유물』, 2022, 49쪽.

23)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 위원장군포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大清康熙二十九年 景山內御制威 遠將軍 總管監造御前一等侍衛海清 監造官員外郎勒理筆帖式巴格 匠役 伊邦政 李文德”

그러나 청대의 위원장군포도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수형대포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수형대포는 길이도 길고 지름도 커서 실전용으로 전투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화포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수형대포는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일까?

현재까지 이 화포의 정확한 용도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청대의 위원장군포나 紅衣大砲 등의 실전용 화포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청대의 의식용 화포 즉 예포로 알려져 있는 것도 없다. 한편 이 수형대포는 포구가 일반 화포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넓은 타원형이어서 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午砲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⁴⁾ 그러나 이 수형대포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폭의 가능성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준에서 이 수형대포는 실전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며, 화포에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팔다리가 표현된 것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추후 유사한 예가 발견된다면 보다 명확한 용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인천시립박물관의 청동정형향로와 수형대포는 1946년 이경성 초대관장이 미 군정청의 협조하에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관해 온 것이다. 정형향로는 2점으로 하나는 완형이고 다른 하나는 귀가 파손되었다. 삼죽과 양이를 바탕으로 한 정형향로는 송대부터 용도가 향로로 변화하였고, 원대에 들어 실내에서 사용하는 정형향로가 60cm에 이를 정도로 대형화되었다. 대형화된 정형향로는 명대에 들어 사찰의 건물 앞에 높이는 전전향로로 설치되었고, 북경 법해사 천황전과 대웅보전 앞의 전전 정형향로는 이러한 것을 대표하는 예라

24) 午砲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와 전략적인 군현과 국경지대에서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포이다. 인천시립박물관, 앞의 자료집, 2022, 49쪽.

고 할 수 있다. 전전향로의 설치는 청대에도 지속되어 사찰뿐만 아니라 황실의 궁궐, 예제 및 능묘 건축 등에서 설치되었다. 명청대 전전향로 중 사찰의 전전향로는 사찰명을 기록하고 다리에 몸체에 문양을 새기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황실의 궁궐과 예제 건축에 놓이는 전전향로는 삼죽과 양이의 기형적 특징만을 지닌 정형향로가 만들어졌고, 휴게공간인 북경 이화원과 황제릉 등에는 동일한 기형의 정형향로에 다리와 몸체에 문양이 표현되고 있어 황실의 전전향로는 놓이는 장소에 따라 형만 유지한 정형향로와 형과 지를 모두 유지한 정형향로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정형향로는 사찰명이 확인되지 않고, 형태상 중국 북경 천단의 정형향로와 유사한 모습이어서 이 향로가 하남성에서 반출되었다면, 하남성의 유교 건축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사찰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향로는 양이가 S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양이를 가진 정형향로를 조관이로라고 하고 전전향로의 기형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형대포는 포구에 동물에 얼굴, 포신에는 사람의 손발이 표현된 독특한 도상을 결합한 것이다. 수형대포에 적용한 獸는 특정한 동물보다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손발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신 윗면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이 수형대포는 1861년 하남성 개봉부의 특정한 현에서 여름에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남성 개봉부에 한 글자의 현은 杞縣이 있어 하남성 개봉부 기현에 있던 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수형대포는 화포에 있는 주조선으로 보아 여러 개의 주조 틀을 사용하여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수형대포의 용도를 청대의 화포와 비교하면서 살펴봤는데, 이와 유사한 예를 찾을 수는 없었고,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예포 또는 장식용 포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수형대포를 만들었던 1861년이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이 있던 시점으로 이것이 예포였다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大清會典』

『山海經』

呂震, 『宣德彝器圖譜』

吳長元, 『宸垣識略』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www.e-lib.sen.go.kr : 84)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중국 불교문화 유산』, 2016

_____,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2008.

인천시립박물관, 『2022년도 인천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자료집 - 조병창의 중국유물』, 2022.

嘉禾, 『中國古典建築常識問答』, 黃山國際出版社有限公司, 2017.

劉敦楨 著, 정옥근·한동수·양호영 공역,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1995.

안귀숙, 「인천의 중국 불교공예」, 『인천의 중국 불교문화 유산』,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6.

이용진, 「중국 고동기 鼎의 방제와 경향, 그리고 영향」, 『미술사학연구』 306, 한국미술사학회, 2020.

_____, 「송대 공예비평서들과 감식안」, 『미술사학』 30,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5.

_____, 「조선 후기 정형향로 연구」, 『동양미술사학』 3, 동양미술사학회, 2002.

주경미, 「중국 법해사 소장 금속제 불구 연구」, 『미술자료』 70·71, 국립중앙박물관, 2004.

최형섭, 「역사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17-18세기 '老北京'의 풍경」, 『中國文學』 91,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陳芳妹, 「追三代於鼎彝之間 - 宋代之考古から玩古への展開について」, 『美術研究』 391, 東京文化財研究所, 2007.

노현균, 「경운궁 중화전 중층기구 복원계획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A Study on the Ding-shaped incense burners and Beast-shaped Cannon hous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Lee Yong Jin*

The ding-shaped incense burners and the beast-shaped cannon hous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were transferred to museum in 1946 by the first director, Lee Gyeong-seong, with the cooperation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re are two ding-shaped incense burners, one with a full shape and the other with a damaged ear. The usage of the ding based on the three feet and the two years changed to an incense burner starting in the Song dynasty. The size of ding-shaped incense burner used indoors became large, reaching 60cm in the Yuan dynasty. Coming to Ming dynasty, large-sized ding-shaped incense burners were installed in front of temple buildings. The ding-shaped incense burners installed in front of Tianhuangdian hall and Daxiongbaodian hall of Fahaisi(法海寺) in Beijing can be said to be representative examples. The installation of incense burners continued into the Qing dynasty and were installed not only in temples but also in imperial palaces, ceremonies, and tombs.

Among the ding-shaped incense burner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ncense burner in front of temple buildings had the characteristic of recording the temple name and engraving patterns on the legs and body. On the other hand, the incense burners in front of palace buildings and ceremonial architectures had the characteristic of keeping the vessel type, the three legs and

* Assistant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two ears.

The temple name has not been confirmed for the ding-shaped incense burners hous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and its shape is similar to the ding-shaped incense burner at the Temple of Heaven in Beijing, China. Therefore, if these incense burners were transferred from Henan Province, it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Confucian architecture of Henan Province.

The beast-shaped cannon combines a unique iconography with an animal face and human hands and feet. The beast applied to the cannon appears to be the face of an animal that shows strength and the hands and feet of a person, rather than a specific animal.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engraved on the top of the cannon, it can be seen that this beast-shaped cannon was manufactured in the summer of 1861 in a Kaifeng in Henan Province.

Judging from the casting lines on the cannon, it can be seen that this beast-shaped cannon was made using multiple casting molds. It is thought that this beast-shaped cannon was used for rituals or decorative cannon.

Key words: ding-shaped incense burner, incense burner in front of building, zhaoguananyiru, beast-shaped cannon, Shanhaijing

